

더시민, 권인숙·윤미향 등 후보 34명 확정

민주당 11번부터 20명 배치...최혜영·김홍걸 등 공천 당선 안정권 17번...열린민주당 등장에 변수 생겨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범여권 비례 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천관리위를 열고 권인숙(5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윤미향(55)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등 34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했다. 명단에는 최혜영 강동대 교수(민주당 비례대표 1번),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2번), 이수진 전 민주당 최고위원(3번),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의장(4번) 등 민주당 출신의 비례대표 후보 20명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당(시민당)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과정에서 23일 당 안팎의 잡음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당적을 바꿔 시민당으로 가게 된 비례대표 후보들과 이들 후보 선출에 참여했던 국민공천심사단 일각에서 불만 기류가 표출되고 있다.

민주당 비례후보 선출에 참여했던 국민공천심사단 참가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경선으로 선출한 비례대표 후보를 방해하는 무책임한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민당이 자체 후보를 내거나 추천하지 않고 순수한 플랫폼 정당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공모해 1~2일 만에 시민 후보를 급조해 면접도 보지 않고 날림으로 비례 후보를 뽑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20명은 이번 총선에서 시민당 후보로 나서게 된다. 시민당 내 비례대표 앞 순번도 소수정당과 시민사회 추천 후보에게 양보하고 후순위로 11번부터 차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당 지지율에 따라 당선안정권을 17번까지라고 본다면 시민당으로 출마하는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는 7명 정도가 당선될 수 있지만

열린민주당의 등장 등으로 아마저 녹록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경선에서 비례대표 후보 4번 순번을 받은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전날 '시민당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전면 배제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으나 지도부는 '후순위 배치'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열린민주당, 합당 아닌 연합 대상”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민주당 출신의 손혜원 의원·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과 관련, “우리 당을 탈당한 분들이 만든 정당으로 북당이나 연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여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민주당 당선자만으로 1당이 안 될 경우 열린민주당이나 다른 비례 정당과 합당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최소한의 연합은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해찬은 이어 “꼭 우리가 의석이 제일 많지 않

더라도 원(院)을 구성하기 전까지 연합하면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복수의 범진보 비례 정당과 통합 문제에 대해선 “합당을 해버리면 존재 자체가 상실되고 불과 몇몇만 얻어도 국고보조금도 나오기 때문에 (합당은)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면서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소수 정당과 연대는 열고 있으나 열린민주당은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라디오에서 시민당에 민주당 의원을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갈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 “한 6~7명”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오영우 문체부기획조정실장 투표소 안가는 거소투표자 28일까지 시·군청에 신고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오영우(55)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광주 출신의 강성천(56)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을 발탁했다. 또한 환경부 차관에 홍정기(54) 전 환경부 4대감조사평가단 단장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부청) 청장에 이문기(54)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인선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임한 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이번 4·15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최갑국 전 공직자기반서관의 후임에 이남구(55) 감사원 공직감찰본부 본부장을, 산업통상비서관에 유정열(5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을 각각 인선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투표소 안가는 거소투표자 28일까지 시·군청에 신고해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거소투표 대상자는 28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군청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투표 방식의 하나이다.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선박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선상투표신고 후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 이차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24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 투표할 수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총선 라운지

윤영덕 ‘아름다운 동행 원팀’ 선대위 출범

동남갑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정치혁신과 지역발전을 활성화 함께 할 ‘아름다운 동행 원팀’ 선대위 출범식을 가졌다.

윤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비쳐졌던 치열한 경선 과정에서의 불합침은 우리를 뒤돌아보게 했으며 끊임없는 반성과 성찰을 요구했다”며 “이에 저희는

모두가 하나 되는 ‘원팀 선대위’를 구성해 시민 여러분의 실망과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광주 시민과 지역민들의 도움이 오늘 선대위로 시작돼 들불처럼 퍼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장병완 ‘청년에는 용기를’ 청년정책 제시

동남갑 예비후보 민생당 장병완 광주 동구남구갑 예비후보는 23일 ‘청년에게 용기를’ 청년부담 나누기는 청년정책을 제시했다.

장병완 예비후보는 “청년은 대한민국 미래동력이고, 청년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면서 “이 시대 청년들은 예전에 당연했던 취직·결혼·집장만 등을 열심히 노력해도 이루기 어렵다. 미래가

불투명한 청년들의 짐을 나누어 함께 지겠다”고 정책 배경을 밝혔다.

또 “학업에서 자립으로 나가는 전환의 시기를 씩씩하고 당당하게 지낼 수 있도록 청년세대의 부담을 나누어주는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이개호, 출근길 지역민에 첫 거리인사

담양·함평·영광·장성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3일 함평군에서 첫 출근인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지난 19일 예비후보 등록을 한 이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함평읍에서 첫 거리인사를 시작하며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출근길 지역민들에게 인사했다.

이날 출근길 거리 인사에는 함평군수 보궐선거 민주당 이상의 예비후보가 함

개하여 함평군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선거, 군수보궐선거 모두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 예비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광주전남의 확진자 수가 현재저지 낮은 것은 지역주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협조 때문”이라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더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이윤석 “정당 아닌 후보 역량으로 선택해달라”

영암·무안·신안 예비후보 민생당 이윤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3일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어느 정당 소속이 아니라, 누가 그동안 우리 지역을 위해 일 했었고, 누가 앞으로 지역 경제를 살릴 책임자임을 선택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일 오전 민생당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암무안신안 지역구 후보로 저, 이윤석을 단수공천 했다”며 “지역

민들께서 후보자의 소속 정당도 아닌 자질과 역량, 도덕성을 기준으로 평가해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저, 이윤석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우려는 희망과 기대로 바꿀 수 있는 확고한 믿음과 자신감이 있다”며 거듭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직원 채용 모집공고

당사는 전국 지역 영업망 구축과 설계·영업 업무를 담당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채용 직종	채용 인원	업무 내용
영업직	○명	합성목재 영업
설계직	○명	합성목재 데크 및 울타리 설계

전국 지사 및 지사장 협력업체 모집 안내

당사는 조달청 우수제품(합성목재), 다수공급자계약제품(합성목재, 디자인형울타리, 방음벽) 전문제조회사로 전국의 지역별 총판(관급 영업 및 협력시공업체)을 모집합니다.

- 모집지역: 전국 시·군구
- 자격 및 우대사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영업경험을 보유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관공서 납품경력자, 시공경력업체 등
- 주요 아이템: 합성목재 데크재, 디자인형울타리, 방음벽, 도로시설물, 데크로드시스템, 확장형인도교
- 문의 및 접수: (주)에이우드·(주)이노스 마케팅팀 ☎ 033) 746-8953 / anywood1201@naver.com

www.any-wood.com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와 재테크 강의

전임강사: 정영수 경영학박사(부동산 전문)

전남대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평생교육공로: “교육부장관상” 수상 MBC-TV방송국 경제특강 공무원연수원 등 500회 이상 초청특강

특 전

자격취득 희망시 국가공인 빌딩경영관리사, 분양상담사, 부동산관리분석사 자격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 후 모임체 결성하여 지도함

강의기간: 2020년 3월~6월(15주) 정월: 선착순 50명 마감

조선대 평생교육원

- 부동산선설텔과 재테크 매주(수) 19시~21시
- 접수처: 062)230-7700~2

광주교육대 평생교육원(무료주차)

- 부동산 실전경매 매주(목) 19시~21시
- 접수처: 062)520-4243

부동산강의 및 부동산경매 관련 상담 010-5613-1808 정영수 박사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책,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 강 (6개월 과정)

- 일 시: 2020. 3. 3(화) 오후7시
- 장 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풍수+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2020. 2. 25(화) 오후7시.
- 장 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상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스엔**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지국안내

북구	·동 광 266-1920	·문 흥 266-1960	·북광주 525-3761
	·신 안 222-8171	·양 산 571-7658	·오 지 266-7601
	·용 북 433-1503	·우 산 433-1503	
동구	·남 광 675-5530	·동 명 222-9054	·동 부 225-6001
	·중 양 222-9054	·충 장 222-8171	
남구	·남 부 675-5530	·백 은 651-1833	·봉 선 675-5530
	·송 하 675-6605	·진 월 671-7276	
서구	·광 천 382-5788	·상 무 372-2352	·서광주 369-1625
	·운 천 376-7153	·치 평 376-6511	·풍 양 603-0311
	·화 정 369-1625		
광산구	·운 남 952-1687	·월 곡 959-1920	·침 단 973-2900
	·하 남 9556 451	·광 산 944-0444	